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지정번호_천연기념물 제84호

위 치_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



은행나무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 할 만큼 오래된 나무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1,0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24m, 가슴높이 둘레 13m나 된다.

원 줄기는 내부가 썩어서 현재 시멘트로 채워놓은 상태이며, 사방으로 뻗어 자라난 가지 중 북쪽으로 뻗은 가지만이 남아 거대한 노목(老木)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남쪽과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오래 전에 부러졌는데, 그 가지로 3년 동안 밥상을 만들고 관(棺) 37개를 짜서 주민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이 나무는 매우 영험한 나무로 통한다. 머리가 둔한 아이를 밤중에 이 나무 밑에 한 시간쯤 세워두면 머리가 좋아지고, 앞을 삶아서 먹으면 노인의 해소병이 없어지며, 나무에 정성 들여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또한 나라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무가 소리를 내어 알려 주었으며, 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흘 간격으로 나무에 제를 지내자 한 사람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여긴다.

지금도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이면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 은행나무 밑에서 향목제를 지내며, 나무 옆에 행정헌(杏亭軒)이라는 육각정자가 세워져 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나무로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오래되고 큰 나무로서 생물학적인 가치도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 국립산림과학원이 문화재청, 금산군과 함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노거수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DNA 추출 및 복제나무 육성에 착수하는 등 요광리 은행나무의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자료제공 : 충남역사박물관)